

민주 “野, 문대통령 사저 공세 치졸한 정쟁 낫뜨겁다”

국민의힘, 양산 사저부지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후 맹공 민주 “강남 사는 대통령만 배출해 소박한 삶의 의미 모르나”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14일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얼굴이 뜨거울 지경”이라고 맞받았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좁스러운 해명”이라며 공격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물들어 왔을 때 노 젓는 심정으로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국회는 대통령 뒷조사를 하는 흥신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

의힘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비극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치졸한 행태를 멈추고 국회 본연의 위무를 이행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이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도대체 세상 어느 나라에 대통령 퇴임 후의 사저 문제를 이처럼 비열하게 묻고 늘어지는 나라가 있는지 정말 얼굴이 뜨거울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은 남을 쳐다보는 나라

가 아니라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국가가 됐다. 제발 비판을 하더라도 공격을 생각해서 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재수 의원은 “과연 국민의힘은 퇴임한 대통령의 소박한 삶과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알기나 한 건지 모를 일”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퇴임하고 서울 강남 사는 대통령들을 배출해 왔던 국민의힘이 노무현 대통령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 공격했던 것도 낫 뜨거울 일인데, 급기야 문 대통령 사저까지 황당한 논리로 공격하는 이상황”이라며 “시간 지나고 세월 흐르면 주위 담을 말인지만 아닌지를 생각해볼시라는 조언조차 아까울 지경”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LH 불법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당황스럽기 짝이 없다. 감정적 분노를 거두고 소상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내내내산”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부지에 대해 ‘탐욕’, ‘욕심’이라 비난했던 장본인은 바로 문 대통령이었다. 이 정권 내내 일관하는 그 지겨운 위선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고 했다.

경남 양산이 지역구인 윤영석 의원은 SNS 글에서 “566평의 농지를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해놓고,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하여 1100평의 땅에 집을 짓는 것은 대통령 특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했던 대통령이 본인의 허물을 지적하는 비판을 곱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조절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이 ‘민망’하고 ‘난감’할 따름”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정진석 의원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걸 죄악시키는 정권에서 대통령 가족들은 왜 그러는 걸까”, 하태경 의원은 “자제력 없는 대통령, 안타깝다”라고 적었다. 김홍 의원은 대통령이 ‘좁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한 SNS 게시물에 두고 “이건 백 년짜리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비꼬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총리 “LH 투기의심자 20명, 농지 강제처분 조치” 정세균(왼쪽)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LH 투기의혹 규명 ‘수싸움’ 與 “특검 도입” vs 野 “검찰 수사”...투기 방지 법안 입법 추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방법을 두고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돼 공직사회 전반으로 의혹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가 4월 재보선을 앞둔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으로 ‘LH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각종 사건으로 여권을 조준하는 검찰의 손에 또 다른 칼날을 쥐여 주지 않으면서 독립적이고 검찰보다 더 강력한 특검 도입으로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까지 병행하면 정치권 전반에 대한 투기의혹 규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14일 민주당 관계자는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투기와의 절연, 투기와의 전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은 중립성·공정성이

관련인 만큼 일반적으로 믿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 검찰 수사를 통해 가장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LH 특검 도입’에 관해선 “먼저 검찰 수사를 시작한 후 특검 도입을 함께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투기조사특위(위원장 권성동)를 통해 LH를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 투기 관련 제보를 취합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의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심사한다. 다만 민주당은 2·4 공급대책 후속법안의 처리도 서두른다는 입장으로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위 전체회의는 오는 19일로 예정됐다. /연합뉴스

뭉-安, 단일화 협상 재개 오늘 오후엔 비전발표회도 실시

야권의 서울시장 주자인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교착상태에 빠진 ‘단일화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양측 실무협상단은 15일 오전 11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애초 이날 예정됐던 비전발표회 역시 하루 늦춰 15일 오후 진행하기로 했다.

비전발표회는 양측 대변인들의 공동 사회로 두 후보가 각각 10분 이내 비전을 발표한 후 30분간 기자단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오세훈-안철수 후보가 휴일 전화 통화를 하고 단일화 시한(19일)을 재확인하면서 협상의 불꽃을 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측이 토론-여론조사 방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비전발표회 일정을 놓고서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조오섭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14일 “LH 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 소속 임직원 및 친족이 주택지구 지정 또는 변경일로부터 역산한 일정기간 동안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내 부동산 거래내역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

다.

한국주택투자공사법 개정안은 LH가 매년 임직원과 일정 범위 내의 친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공공주택지구 또는 특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조오섭 의원은 “LH 신도시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된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부패한 공직자는 폐가망신한다는 ‘행정적패’ 청산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과 ‘불감증’을 바로잡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의회 경관위 ‘현장 중심’ 의정활동

16~24일 임시회...화순 바이오센터·신안 육상풍력발전단지 등 방문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현창·구례)가 16~24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관위는 오는 17일 임시회 첫 일정으로 화순에 있는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활의약연구센터를 방문, 올해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이어 화순 소재 바이오기업인 ㈜박셀바이오, ㈜바이오에프디엔씨,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활의약연구센터 내 코로나19 임상백신 위탁 생산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22일에는 6년여 준비를 거쳐 광양에서 개관하는 전남도립미술관 개관식에 참석, 예향 전남의

위상을 떨칠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립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23일에는 녹색에너지연구원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신안 자은도에 위치한 육상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해 2029년까지 48조 5000억원을 들여 조성되는 신안 해상풍력단지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현창 위원장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제도약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간담회·세미나 등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함께 도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종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자,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 (2) 광주 동. 충장로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동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야시장 주동로 코너 점포 8칸,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칸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타라브즈,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9천9백만원
-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중개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출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